

## “ 기독교인의 품위와 고상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

### ■ 이종윤 원로목사

16세기 개혁자들은 복음의 본질이 변질, 왜곡 그리고 형태가 손상 되었을 때 과감하게 본래의 복음인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의 교회 모습보다는 무례하고 천박한 종교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변두리로 몰아내고 제 주장 세우기에 급급하고 어디서나 최고가 되고 자기 것만 최선이라고 우겨대는 모습을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반기독교적, 반예수, 반성경운동이 확산되고 Anti기독교 사랑하는 모임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무례나 무지를 탓하기 전 우리 자신이 개혁의 대상임을 시인해야 한다.

### 어떻게 고상하고 품격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 앞에서 신전(Coram Deo)의식을 갖고 사는 이가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신을 믿는다면서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자만심에 빠진 이들이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온다고 믿는 이가 기독교가 자기만의 종교요 자기만 구원받은 백성이라 주장한다면 그리고 기도의 대상도 무엇을 기도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냐 다 들어주신다면서 자신의 탐욕 충족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이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였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편이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각박하게 대하지 말고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대로 배불리 먹되 그릇에 담지는 말라” 하신대로 너그럽게 여유 있게 이웃을 대접해야 한다. 상대방을 경쟁상대나 부리는 대상으로가 아니고 소망, 기쁨, 자랑의 대상으로 타인을 보아야 한다. 현실에 초연하고 궁극적인 것에 시선을 집중할 때 신앙의 고상함과 품위가 드러나게 된다. 초대교회에도 위선, 이단, 음란, 당짓기, 우상숭배와 같은 죄들이 있었으나 성령이 오신 오순절 이후 배우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바뀜으로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표출되었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즉 무신론자, 복술자, 창녀, 세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랑의 역사를 일으켰다. 무엇보다 죄를 자복하는 통회의 역사와 가치관의 변화로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물질관에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결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높은 도덕심과 영성 때문에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은 이상적 삶을 사는 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지상에 살지만 이방인같이 살되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 천국백성은 그리스도를 좇아 사는 다른 삶을 산다 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기독교가 그 질적 독특성 때문에 가졌던 품위와 고상함을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회복하여 성령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자.

-한국장로신문 [제 1377호] 2013년 8월 3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ollux Kiplagat]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Sister Lumie Hwang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1 Kings 19:1-9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resider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Take Rest in the Lord” ..... Pastor
* Hymn .....	619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asto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b>부 목 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교육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b>선 교 사</b> 강아급주enna,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 비컨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이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애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례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린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군선교)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

■ 출 32:25~35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육자와 같이 만들어 주신 땅을 밟고 출애굽 한 후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유랑하였습니다.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날 이 가까워졌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사나이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도록 한 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언약의 말씀을 새긴 증거판 두 개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돌려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 죄우를 보지 않고 오직 하늘을 보는 사람이다  
 돌이켜 보면 사람들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내 자신의 행동의 변화는 마비하거나 또는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무궁무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편에 계심으로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편이 되어 달라고 하고 있을 뿐, 내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우를 보지 않고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설 때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 협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말렙과의 전쟁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말렙과 싸우러 나가리, 나는 내일 하나님의 자광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서 있었다.” 라고 합니다. 다음날 여호수아는 이말렙과 싸우러 나갔고, 모세는 친형 이룬과 매형인 홀과 함께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이말렙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가 저쳐 손을 내려가자 이룬과 홀은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돌 위에 얹히고 이룬은 모세의 오른손을, 홀은 왼손을 잡아 하늘 높이 들었으며, 그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이 이말렙을 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가 협력하여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 모세와 이룬과 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목사와 장로와 모든 성도들의 합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3. 죄를 회개하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는 책임자입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심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간구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진정성을 아시고, 하나님의 귀를 여실 것입니다.

4.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선지자 학개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말씀합니다(학 2:4).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있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정이, 성가는 교회가 그리고 조국이 어려워지고 흔들릴수록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해야 합니다.

5.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이다  
 주의 권능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시는 즐겁게 참여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위엄 있게 단장한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올 것입니다.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서울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맺는 말  
 찢어지고 갈라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어찌 하려 하십니까?  
 우리나라, 우리민족, 남쪽과 북쪽을 어찌하려 하십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위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광순 목사 설교요약

